

2026. 8. 23

제117권 34호

주일1부(묵상)예배

오전 7시30분		인도:김기중목사		
예배의부름		인	도	자
송 영		찬	양	대
찬 송 *서서	35장	다	함	께
성 시 묵 상	85, 요한1서4장	다	함	께
고백의기도		다	함	께
사죄의선언		인	도	자
신 앙 고 백		다	함	께
찬 송 *앉아서	220장	다	함	께
기 도		조희열	집사	
찬 송 묵 상	(내 주의 보혈은, 권용일장로)	다	함	께
봉 헌 송 *서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함	께
봉 헌 기 도		조경화	목사	
교 회 소 식 *앉아서		조경화	목사	
찬 양	찬양으로 제사 드리나이다	살롬찬양대		
찬 송	637장	다	함	께
성 경 봉 독	누가복음6:35~36(신약P.99)	조경화	목사	
말 씀 선 포	【자비,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열매】	조경화	목사	
말 씀 묵 상		다	함	께
성도의교제 *서서	55장	다	함	께
축 도	송영	조경화	목사	

오늘의 말씀 / 조경화 목사

누가복음 6:35~36 / 자비,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열매

성령강림절 후 열셋째 주일

주일2부(전통)예배 / 오전 9시

인도:최성수목사

찬 송	35, 220, 304, 55장	다 함 께
교 독	85. 요한1서4장	다 함 께
기 도		양광석장로
찬 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호산나찬양대

주일3부(세대통합)예배 / 오전 10시30분

인도:권훈목사

찬 송	…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220, 304, 은혜 아니면	다 함 께
기 도		이종길장로
찬 양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리니	글로리아찬양대
파송과위탁		다 함 께

인도자 :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
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회 중 :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일4부(열린)예배 / 오후 12시

인도:조경화목사

경배와찬양	소리엘찬양단
목 회 기 도	인 도 자

† 내주기도 : Ⅰ 부 - 조재복 집사 / Ⅱ 부 - 배외수 장로 / Ⅲ 부 - 조주규 장로
청년예배 - 권기원 청년 / 찬양 - 김율리 권사 / 수요 - 김경옥 권사

† 이달의 강단 꽃장식 : 강성갑 신미영 김종관 최희숙 조재일 장애영 조정흙 조동흙 강문희 김명옥

* 8월 예배위원 -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안	내	봉 헌	예배중보기도	차량안내		
I	이종길	권영민	김경희	이춘배	장민수	조금숙	정영수 김종관 권대기 권오덕 길건성 박수권 정휘동 조대용 황병락 사봉권 이국환 박영재
II	심재창	이인섭	이정필	서필화	조주탁	신미영	
III	신동현	김인택	임은주	이경자	김종관	강은영	
IV	최종일	이경현	한상희	김정란	김인택	장주애	

주일5부(청년)예배 / 오후 1시45분

경배와 찬양 - 하느래워십 / 기도 - 나한수청년

설교 - 느헤미야4:10~18(구약P.730) / 치열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 최성수목사

주일오후찬양예배 / 오후 3시 (새순·비전터교회 헌신예배) 인도:이윤호학생(비전터회장)

경배와 찬양 - 새순비전터찬양단 / 찬송 - 430, 54 / 기도 - 권진학생(새순회장) / 찬양 - 새순비전터찬양대

성경 - 디모데전서4:12~15(신약P.339)-김주은학생(새순부회장) /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 최성수목사

수요오전예배 / 오전 10시30분

경배와 찬양 - 예음찬양단 / 은혜나눔 - 이근미집사

설교 - 마태복음13:10~17(신약P.20) /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 이종숙전도사

수요저녁예배 / 저녁 7시30분

경배와 찬양 - 르비딴찬양단 / 기도 - 권명숙권사 / 은혜나눔 - 고혜란권사 / 찬양 - 다비다찬양대

설교 - 누가복음5:1~11(신약P.95) /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 권훈목사

묵 상 노 트

“자비,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열매” (누가복음 6:35~36)

- 자비, 내가 받은 _____ 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조차 햇빛과 비를 그 리고 구원을 허락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각자가 지고 있 었던 죄의 무게는 '일만 달란트'였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거대한 탕 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거대한 자비의 바다 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강박하고 메마른 심령 속에서 자비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 님의 자비를 깨닫고 있는가?
- 자비, 대가를 감수하고 _____ 실천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충격적이고도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 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지운 죄와 상처의 대 가를 내가 대신 짊어지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불의와 고난을 당하셨다.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권세와 능 력이 있으셨다. 그러나 당신을 향해 침 뱉고 비웃는 그들을 위해 피 흘리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셨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기 께이 그들을 위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는가?